

## 보도설명자료

(‘13.11.1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「2035년까지 원자력 수요 연평균 3.28% 증가」  
제하 기사 관련 (‘13.11.17, 연합뉴스)

---

### 1. 기사내용

- “원전비중을 2035년까지 22~29%로 낮추도록 권고했다. 이는 1차 기본계획의 41%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. 그러나 수요전망에선 여전히 원자력의 연평균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”고 보도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동 기사에 보도된 1차 에너지 수요전망은 BAU(Business as usual)의 개념으로 이는 **현재의 정책여건과 소비패턴 등이 그대로 유지**된다는 가정하에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수치
- ‘35년의 원자력 수요는 기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‘24년의 원전비중인 27.8%를 기반으로 최근의 에너지 소비 추이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에 불과함
- 따라서 민관 워킹그룹이 원전비중과 관련하여 권고한 ‘35년의 22~29%는 최종에너지 內 발전부문에 대한 것으로 1차 에너지 수요전망(BAU)과 전혀 관련이 없음

※ 관련 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장(02-2110-4868)

신용민 서기관(02-2110-4870)